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의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

우리는 기존 경춘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앞으로 입주할 왕숙 신도시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 사업이 2025년 5월 1일에 차질 없이 개통되어,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 환경이 반드시 개선되도록 74만 남양주 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상봉-마석간 셔틀 열차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기존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정부가 약속한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전략에 따라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한 사업이며, 열차 2편성을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18분 간격에서 12분 간격으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제작을 마쳤으며, 2025년 5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시행 주체이자, 국가철도인 경춘선을 운영하며, 국민에게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명백한 책임이 있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재원 분담 의무가 있는 왕숙 신도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시민을 볼모로 삼아, “경춘선 구도심 주민들도 수혜를 본다”는 주장과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운영을 남양주시가 요구했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열차운행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경춘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오직 남양주시에만 부담하라며 건강부회하고 있다.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계획(보고서)에 명시된 바에 같이, 코레일은 운영 책임을 다해야 하며, LH는 재원 부담 주체로서 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기존 경춘선 이용 주민에게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숙 신도시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재정이 열악한 남양주시에 열차 운영비를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상봉-마석 간 서틀 열차”가 차질 없이 개통되어, 경춘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남양주시의회는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지역 주민과 왕숙 신도시 주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봉-마석 간 서틀 열차”의 2025년 5월 1일 정상 개통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남양주시의회는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본래 취지에 따라, 코레일과 LH가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열차 운영비 부담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남양주시의회는 “상봉-마석 간 서틀 열차”의 정상 개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을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4월 14일

남양주시의회